

기획논문

---

전통과 근대성

# 近代中國에서의 傳統과 近代

## — 清末民初 西學受容 試論

金 衡 鍾

(서울대 동양사학과)

### 머리말

근현대 중국의 역사는 전통적인 사회체제의 변화 흐름 속에서 청대중기 특히 19세기 이후가 되면 청조 지배체제 전반의 쇠퇴로 말미암은 심각한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 중국사회와 문화 내부의 근대적 변화를 더욱 가속시킨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19세기에 들어와 전에 없이 강화된 서양세력의 도전이었다. 따라서 19세기 이래 중국 근현대의 역사는 이러한 내부적 사회변화의 요소와 더불어 강력한 도전자로 나타난 서구의 충격 을 어떻게 흡수하면서 그것을 중국적인 전통과 융합 조화시켜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가, 그러한 이질적인 문화와의 충돌을 어떻게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근대적 문화를 창조하는가 하는 과제를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제는 보통 근대사상사연구에서 ‘中學’ 과 ‘西學’ 의 상호관계(또는 傳統과 近代)란 틀 속에서 고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근대의 역사에서 ‘서학’ 의 수용에 있어 중요한 전

주 제 어: 근대중국, 중체서용, 청말, 민초, 신문화운동, 서학, 5·4운동  
近代中國, 中體西用, 清末, 民初, 新文化運動, 西學, 5·4運動

환점으로 간주되는 清末의 辛亥革命期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그 시기의 '서학' 수용과 중학 비판이 그 이전시대와는 어떠한 다른 성격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후 民國初期의 5·4시기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反傳統主義'나 '全盤西化'의 경향과 비교할 경우 어떠한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西學'의 受容과 中學의 批判에서 나타나는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은 청말과 民國초기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것은 20세기 초 10년에 걸친 辛亥革命期가 西學의 수용이란 점에서는 사실상 19세기의 그것보다 훨씬 철저하고 광범위하며 전반적인 사회체제의 급속한 변화를 수반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中西文化의 갈등과 통합이란 관점에서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래의 辛亥革命史 연구는 주로 혁명사적 시각에서의 고찰이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이에 따라 이 시기 思想이나 文化의 측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대부분 그러한 革命이나 改革사상의 이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많았던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종전의 연구에서 청말 신정기에 관한 고찰을 과제로 삼은 적이 있지만<sup>1)</sup> 傳統과 近代, 또는 中學과 西學의 위상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문화적 충돌과 갈등·수용·융합이란 측면에 대해서는 다루어보지 못하였다. 반면 五·四運動(과 新文化運動)은 최근에 와서는 특히 그 사상혁명으로서의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정치참여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sup>2)</sup> 따라서 신해혁명을 거쳐 청조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된 다음의 民國初期에 전개된 新文化運動과 같은 경우는 5·4운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辛亥革命期의 사상이나 문화에

1) 金衡鍾, 『清末 新政期の 研究 — 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서울대출판부, 2002).

2) 이점은 5·4운동 80주년이나 9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은 논문집의 목차를 일별하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민국 초기의 신문화운동은 청말 신정기의 일정한 지반의 정리작업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그 점에서 청말과는 단절된다기보다 그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적인 비약을 이룬 것이라는 시각도 가능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해왔다. 이를테면 청말 신정기도 이미 유교비판이나 서구문화의 수용에 대한 많은 논점들이 민국 초기의 그것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원형이나 기본 내용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언급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사실상 近代中國에서의 西學의 수용이나 중서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도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료의 검토를 통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辛亥革命期를 중심으로 특히 중서문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커다란 점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이후의 민국시대와 어떠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는 흐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검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맥락을 잡아 필자 나름의 구상을 제기해보려는 試論性格의 것이지,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辛亥革命期(또는 清末民初)의 思想的 狀況에 대해서 새로운 실증이나 분석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 1. 清末(19세기)의 中體西用論的 思考와 西學受容

근대중국, 특히 19세기의 중국사상사나 중서문화의 관계를 연구할 때 中體西用論이란 개념이 중요한 분석틀의 하나로 이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근대사상사를 다루는 연구의 경우 대부분 이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이 문제만을 전론으로 다룬 연구도 적지 않다.<sup>3)</sup> 따라서 19세기 중국에서의 '中體西用論的 思考'(중체서용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듯이 다양한 이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것을 총괄하여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다)의 흐름을 여기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여기서는 서학수용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증체서용론적 사고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듯이 中體西用(“中學爲體 西學爲用”)論의 思考이란 중국의 전통적 가치(中學)를 體로 삼고 그것을 보위하기 위하여 西學을 用으로서 받아들여 이용한다는 논리이며, 中學(내지는 中體)의 不變을 전제로 하여 ‘用’의 範圍 내에서 西學을 받아들인다(西用)는 思考方式이다. 압도적인 서양문명의 도전에 대면한 중국문명의 대응에서 나타난 문화적 수용모델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사고는 傳統的 華夏中心主義에 기초하여 “用夷變夏”나 “奇技淫巧”를 내세우면서 “서구로부터의 학습”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보수파의 입장에 대항하여 “서양의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이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자기 확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장점의 수용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자기주장”<sup>4)</sup>이란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특히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 상대적인 진보성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sup>5)</sup>

3) 이를테면 수많은 중국사상사, 사회사조사, 문화사연구서를 제외하고 증체서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을 든다면 薛化元, 『晚清中體西用思想論(1861~1900) — 官定意識形態的西化理論』(臺北: 稻鄉出版社, 1991)과 丁偉志·陳崧, 『中體西用之間: 晚清中西文化觀述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을 들 수 있다. 이 두 연구서는 증체서용론의 역사와 내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昌切, 『清末民初的思想主脈』(東方出版社, 1999)도 제목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청말民初 증체서용론의 논리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도 閔斗基, 「中體西用論考」, 『東方學志』 18, 1978; 張義植, 「清末 張之洞(1837~1909)의 中體西用論과 教育思想」, 『歷史學報』 147, 1995; 曹秉漢, 「19세기 중국 개혁운동에서의 ‘中體西用’」, 『동아시아역사연구』 2, 1997 등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4) 閔斗基, 「中體西用論考」, 『中國近代改革運動의 研究 — 康有爲中心의 1898年改革運動 —』(一潮閣, 1985), p. 24.

그러나 문제는 중체서용론적 사고에서는 중체를 西學의 受容을 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만 논점이 일치할 뿐 不變의 中體가 아닌 西用에서 ‘用’이 의미하는 범위가 무엇인지는 논자가 따라서 상당한 범위나 강조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역사적 작용이나 의미에 대해서도 그것이 주장되는 시기나 사회상황 또는 논자의 강조점에 따라 상당히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일 것이다. 西用이 단순한 서구의 과학 군사기술이나 산업기반(이른바 ‘器物’로 표현되는)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아가 그것을 밀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근대서구의 국민국가적 政治制度나 政治理念(‘政教’),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議員制나 그것을 밀받침하는 民權論 등의 制度改革論까지도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用의 問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體의 變化라는 문제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체서용론적 사고를 이해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洋務思想’을 이해할 때도 그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함의가 확정된 개념으로 간주하여 약간의 고정적인 강령과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괄하기보다는 허다한 사상이 복잡하게 병존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은<sup>6)</sup> 아마 중체서용론적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중체서용론을 洋務運動(自強運動)과 결부시켜 양무운동의 사상적 특성(서양에서 制度的 改革理念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것을 이후의 變法論(제도개혁론)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近

5) 물론 전체적 거시적인 입장에서 개괄할 경우 ‘中體西用論’이 “하나의 방어적 구호로서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중국이 세계나 근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을 방해하는 것”, “소극적인 태도로 세계역사변화의 조류에 적응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전형적인 文化保守主義의 口號라는 평가(方克立, 『評“中體西用”和“西體中用”』, 張立文等主編, 『傳統文化與現代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7, p. 333)도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6) 彭明等主編, 『近代中國的思想歷程(1840~1949)』(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pp. 132-133.

代中國 思想의 發展段階를 설명하려는 방식이 한 때 학계의 주된 흐름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양무파나 변법파 모두 사실상 중체서용론적 사고라는 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양무파의 사상에서도 제도개혁론의 단서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점(물론 그 실천에의 지향에서는 편차가 있지만), 그리고 당시 이용된 중체서용론적 논리의 틀은 體用이란 엄격한 철학적 의미를 의식하고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한 연구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면서<sup>7)</sup> 지금에 이르러서는 중체서용론을 양무파의 논리로 귀결시키는 시각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8)</sup>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체서용론적 사고를 통한 19세기 중국사상사의 분석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다. ‘洋務派’나 ‘初期變法派(또는 早期維新派)’ 및 ‘變法派’로 불리우는 집단의 사상이 넓게 보아 모두 여전히 중체서용론이란 틀에 의해 파악될 수 있고, 또한 그들 사이에서 중체서용론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중체서용론의 다양한 내함을 분석하는 것은 청말 사상의 변화나 서학의 수용이란 문제를 이해할 때 여전히 여전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기원은 멀리 明末이나 淸代로까지 거슬러 찾는 경우도 있지만,<sup>9)</sup>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직후 林則徐나 魏源이 제시한 서구로부터의 학습자세(저 유명한 “師夷之長技以制夷”의 구호)에서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西學’을 언급하

7) 閔斗基, 1985를 참조. 또한 양무파의 제도개혁론에 대해서는 熊月之, 『中國近代民主思想史』(上海人民出版社, 1986), pp. 124-133 등을 참조.

8) 이를테면 陳旭麓, 「論“中體西用”」, 陳旭麓, 『近代史思辨錄』(廣東人民出版社, 1984); 張岱年·程宜山, 『中國文化與文化論爭』(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0), p. 336 등을 참조. 물론 皮明休, 「“中體西用”論評議」, 『辛亥革命與近代思想—近代歷史探究錄』(陝西師範大學出版社, 1986)의 경우처럼 여전히 종래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9) 張岱年·程宜山, 1990, pp. 312-321; 吳雁南等主編, 『中國近代社會思潮 1840~1949 第一卷』(湖南教育出版社, 1998), pp. 627-628.

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양의 ‘長技’에 대한 인식도 그리 깊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보다 엄격하게 따져서 구체적으로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출현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1861년 馮桂芬이 본격적으로 ‘西學’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中國의 倫常名教를 原本으로 삼고, 諸國의 富強之術로서 이를 輔完한다”(『校邠廬抗議』「採西學議」)는 주장을 내세운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馮桂芬의 주장은 이후 양무파에 의한 중체서용론의 濫觴으로 간주되는데,<sup>10)</sup> 이후 양무파의 대관료인 曾國藩이나 李鴻章, 左宗棠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이러한 중체서용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서학(주로 西歐의 ‘技藝’)에 주목하면서 그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나, 이른바 初期變法派로 분류되는 郭嵩燾, 薛福成, 王韜, 鄭觀應 등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중체서용론적 사고를 제시하였지만<sup>11)</sup> 그들의 體用一致的 중체서용론은 體用分離的이고 體用間의 엄격한 緊張關係가 결여된 양무파의 중체서용론과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 아울러 구체적으로는 西用の 범위가 제도개혁론(서구의 정치제도와 사상,

10) 물론 馮桂芬의 이러한 주장은 양무파의 그것과는 달리 서구문물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있기 때문에 양무파 중체서용론의 개괄로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널리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張岱年·程宜山, 1990, pp. 322-324를 참조.

11) 王韜의 경우 “器는 西國에서 취하지만 道는 자연히 우리 것에 갖추어져 있다. 만세불변의 것은 공자의 도이기 때문이다”(『菽園文錄外編』卷11), 薛福成的 경우 “西人の 器數之學을 취하여 우리 堯舜禹湯文武周公의 道를 지킨다”(『籌洋芻議』「變法」), 鄭觀應의 경우 “道는 본이고 器는 末이며, 器는 변할 수 있으나 道는 변할 수 없다. 이른바 變이라는 것은 富強의 權術이지 孔孟의 常經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中學은 본이고 西學은 末이다. 中學을 주로 하고 西學으로 輔完한다”(『盛世危言』「西學」)는 것이고 張之洞의 경우는 “변할 수 없는 것은 倫紀이지 法制가 아니며, 聖道이지 器械가 아니고 心術이지 工藝가 아니다. … 법이라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므로 항상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도는 본을 세우는 것이니 불가불 일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른바 道本이라는 것은 바로 三綱四維이다”(『勸學篇』外編「變法」第七)는 내용이다.

또는 議員制나 民權論 등의 志向)까지 확장되어나갔다는 점도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sup>12)</sup>

이렇게 구체적으로 西用의 範圍·內容이나 體用(또는 道器)의 상호관계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해(體用分離인가 體用一致인가)나 用法에서의 偏差(中學과 西學의 관계에서 本末, 主輔, 道器, 體用 등의 다양한 개념을 빌린 표현), 그 주장이 이루어진 시기의 차이 등 때문에 중체서용론 사고나 사조를 이해하거나 평가하는 데 많은 혼란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자세한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중체서용론적 사고내지는 사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실 '중체서용'이란 용어가 정식으로 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구호가 되는 점은 1895년 이후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 이전의 중체서용론적인 사고는 오히려 '中本西末'論으로 부르는 게 타당하다는 戚其章의 지적은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척기장은 그 이유로서 1861년 이후 30년간 중학과 서학의 문제를 다룰 경우 대부분 "中本西末"이나 "中本西輔", 또는 "中道西器", "中道西藝"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로 本末의 관점에서 중학과 서학의 관계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고 "中體西用"이란 용어는 결코 주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3)</sup> 이 점과 관련해서는 "중과서의 관계는 대부분 체용이란 철학적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의미를 인식

12) 薛化元, 1991은 이런 점에서 洋務派主流의 中體西用論과 非洋務派主流의 中體西用論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3) 戚其章, 「從“中本西末”到“中體西用”」, 『中國社會科學』 1995-1. 물론 척기장은 양무파의 중본서말론과는 달리 早期維新派의 중본서말론은 양무파가 중본과 서말을 완전히 다른 사물로 간주한 것에 비해 본말일체의 입장에서 중학이나 서학 모두 각기 본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 양무파는 중국의 정교가 영원히 서양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서 있으나 조기유신파는 중국의 낙후가 末의 방면뿐만 아니라 本의 방면에서 주로 나타나며, 따라서 本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는 점, 그리고 양무파에게 있어 본말은 主輔관계이나 조기유신파는 본말을 일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고 있다.

하고 사용된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가 先後, 主補, 심지어는 量의 多少를 의미하기도 하였다”는 지적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므로<sup>14)</sup>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체서용론의 단계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보다 나은 방안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학위체 서학위용”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95년 4월 『萬國公報』의 編者이자 上海中西書院의 總敎習이었던 沈壽康이 “중서학문은 본래 서로 각기 득실이 있으나 華人을 위해서 도모한다면 마땅히 중학을 체로 삼고 서학을 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한 사례가 처음이고,<sup>15)</sup> 이후 여러 사람에게 의해 이러한 “中學爲體 西學爲用”의 개념이 援用되면서 당시 사회를 휩쓴 유행사조가 되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척기장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무파 관료들이나 초기변법파의 경우 그리고 이후 『勸學篇』의 저술로 인해 이른바 ‘中體西用’論의 대표자격으로 간주되게 된 張之洞의 주장은 사실상 西學을 채용하여 中學을 ‘補救’하자는 데 착안점을 둔 것, 즉 서학으로 중학의 결함을 補救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中本西末’論이라고 해야 하며, 變法派의 중체서용론적 사고는 ‘補救’보다는 ‘會通’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그들의 것은 ‘會通’論(“中西之學을 融會하고 中西之理를 貫通한다”는 표현으로 대표된다)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실제 康有爲나 梁啓超 등의 中西文化觀은 양무파적 중체서용론의 흔적도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會通論的 성향이 강하다는 것도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sup>17)</sup> 中本西末論과 中西會通論으로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논자는 이것을 달리 ‘中上西下’에서 ‘中西對等’으로의 변화로 파악하기도 한다(물론 그 다음의 단계는 5·4기의 ‘西上中下’로의 이행이다).<sup>18)</sup>

14) 閔斗基, 1985, p. 52.

15) 吳雁南等主編, 1998, pp. 613-632.

16) 戚其章, 1995, p. 6. 또한 戚其章, 「全面評價張之洞의 “中體西用”文化觀」, 『人文雜誌』1998-3을 참조.

17) 昌切, 1999의 제2장; 丁偉志·陳崧, 1995의 第3章 등을 참조.

이러한 중체서용론적 사고에서의 변화는 결국 청일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중국 사상계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종전에 ‘中本西末論’의 思考가 더 이상 시대의 수용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암시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1895년 이후에야 ‘中體西用’이란 용어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역설적이다. ‘中本西末’論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에 와서야 오히려 ‘中體西用’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하게 되고 나아가 戊戌改革期나 20세기 초의 新政期 초기단계에까지 淸朝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유명한 張之洞의 『勸學篇』은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은 시대적 수요와 그에 대한 사상 문화적 대응에서의 時差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동시에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잘 이야기해준다. 첫째는 1890년대까지의 中本西末論의 思考가 西用に 의한 中體의 ‘補救’에 중점이 두어졌던 반면 청일전쟁 이후의 중체서용론적 사고가 ‘會通’으로 그 중점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종래 ‘不變’의 것으로 설정되면서 그 우월성을 의심받지 않았던 中學의 위치가 점차 동요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중체서용론적 사고에서의 중요한 전제였던 ‘中學爲體’는 西用이라는 범위에서는 서구에 뒤떨어져 있지만 中體 즉 중국의 政敎는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었고, 중체서용론적 사고를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는 鄭觀應의 경우조차 西法을 모방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改革을 주장하면서도 ‘堯舜周公之道’는 “萬世不易의 大經大本”이라는 원칙을 견지할 정도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우월성의 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물론 청일전쟁에서의 패배가 가져다 준 충격과 그에 따른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중체서용론적 사고에서의 주요관심이 과거의 ‘西藝’라는 측면에서 ‘西政’이라는 측면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중체’의 범위가 ‘政敎’에서 단순한 ‘敎’의

---

18) 昌切, 1999.

범위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sup>19)</sup>

청일전쟁 이후 변법론 개혁론의 득세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지적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일전쟁 이후 ‘中體西用’의 용어가 유행하였지만 그것이 이용된 경우는 대부분 教育(특히 新式學堂)과 관련되어 제기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중학위체 서학위용’을 맨 처음 제기한 심수강의 증서서원의 충교습이었다는 점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1896년 1월 江蘇候補道 朱之榛이 蘇州에 中西學堂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張之洞에게 올린 上書에서 “중학을 체로 삼고 서학을 용으로 삼아 海內의 風氣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한 사례나, 京師大學堂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孫家鼐가 “당연히 중학을 주로 삼고 서학을 보로 하며, 중학을 체로 삼고 서학을 용으로 한다”고 종지를 내세운 것(梁啓超도 이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1898년 5월 盛宣懷가 南洋公學과 관련하여 何嗣焜을 추천하면서 “서학을 용으로 삼는 것은 반드시 중학을 체로 삼아야 한다고 縱談하였”음을 언급한 것, 張之洞의 경우도 『勸學篇』의 발표 이전인 1898년 5월에 兩湖 經心書院을 學堂으로 개편하면서 “중학을 체로 삼고 서학을 용으로 삼아 迂陋하거나 無用하다는 비난을 피하고 또한 離經叛道の 폐를 피한다”고 종지를 설명한 것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sup>20)</sup> 전통적인 教育體制를 대신하여 점차적으로 新式學堂으로 教育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西學·新學의 도입을 주요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된 상황 아래서 感知되는 中學의 位相에 대한 不安이 바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教’의 범위로까지 축소된 中學은 그 ‘教’의 범위에서조차 西學 또는 新學의 도전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張之洞이 1898년에 발표한 『勸學篇』인데 이 『勸學篇』의 성격은 동시에 이 시기

19) 謝放, 「中體西用: 轉型社會的文化模式」, 『華中師範大學學報(哲社版)』 1996-3.

20) 陳旭麓, 1984, p. 45; 謝放, 1996, pp. 3-4; 吳雁南等主編, 1998, pp. 632-649 등을 참조.

에 와서 처한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한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張之洞의 『勸學篇』이 주로 洋務派의 中體西用論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주로 “致用的 要로 삼아야 한다”면서 ‘致用’의 방향으로 中·西學을 재구성하자는 데 중점이 두어진 실용주의적 특성이 강한 것이라는 점이나,<sup>21)</sup> 光緒帝의 긍정적 평가에 의해 전국적으로 그것이 보급되면서 오히려 變法運動에 대항하는 도구로써 이용되었으며, 戊戌變法期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화단사건 이후의 新政期 초기단계에서까지 清朝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22)</sup> 하지만 『勸學篇』에서 張之洞이 내세운 유명한 구절인 “中學은 內學이 되고 西學은 外學이 되며, 中學은 心身을 다스리고 西學은 世事에 對應한다”는 주장은 원래는 체용을 兼備하였던 中學이 이제는 단지 “심신을 다스리는” 의미만 남아 있게 되고 “世事에 대응하는” 기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西用’을 끌어들이어 “世事에 대응하는”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지적은<sup>23)</sup> 의미하는 바가 크다. “西政 西學은 과연 중국에 유익하고 聖教에 손해됨이 없다면 옛적의 증거가 없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릴 필요가 없으며, 하물며 經典에 비추어 아주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勸學篇』 外編 「會通」 第十三)고 한 張之洞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內聖外王’論의 파탄으로 상징되는 中學의 축소는 1897년

21) 閔斗基, 1985, pp. 33-34; 姜林祥, 『中國儒學史 近代卷』(廣東教育出版社, 1998), pp. 139-150 등.

22) 이를테면 光緒帝는 1898년 6월 國是를 詔定하면서 “聖賢의 學植을 그 根本으로 삼고 아울러 西學 가운데 時務에 절실한 것을 널리 채납하여 實力으로 講求”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吳雁南等主編, 1998, pp. 633-649나 丁偉志 陳崧, 1995, pp. 240-271의 논의를 참조.

23) 謝放, 1996, p. 4. 高克力, 「躁動的現代化之夢 — 文化激進主義思潮述評」, 高瑞泉主編, 『中國近代社會思潮』(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p. 256에서도 西用的 도입이 실제적으로 儒學이 無用之體, 失器之道가 되었음을 승인하게 했을 뿐 아니라 儒家의 綱紀倫常의 道器體用兼備라는 ‘內聖外王’의 신화 역시 파산했음을 선고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의 중국에서는 西學不興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中學이 장차 亡함이 걱정된다”고 하였던 梁啓超의 시대를 앞선 杞憂가<sup>24)</sup> 더 이상 杞憂가 아닌 현실로서 다가오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체서용론적인 문화모델이 학술문화의 차원에서 실제로는 서학·신학의 도입을 통해서 유학의 경세치용 전통을 회복하고자 강조하는 것이었으나 그 실제적인 결과는 서용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중체의 범위를 축소시켜 결국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서학위용을 위한 보호우산이 되어버렸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sup>25)</sup> 결국 중체서용론의 최종적인 결말은 “심신을 다스리는” 범위로 축소되어버린 中學을 ‘教’의 옹호를 위한 教育方針의 차원으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20세기의 辛亥革命期가 되면 清朝政府 차원의 정책지침 이외에는 中體西用論的 思考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가 자취를 감추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쇠퇴는 동시에 그 자체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에 의해서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서구국가는 “자유를 체로 삼고 민주를 용으로 삼는다”고 지적하면서 중체서용론적 사고를 “牛體馬用”이라 비유하여 그 논리적 모순에 대해 가장 예리한 비판을 가하였던 嚴復<sup>26)</sup>의 경우나 張之洞의 『勸學篇』이 지닌 내재적 한계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퍼붓았던 何啓의 경우(「讀勸學篇書後」)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sup>27)</sup> 이른바 華夏(中華)中心主義의 世界觀에 기초하여 中學(중국전통문화)의 절대적 우위(體, 本, 主)를 내세우면서 中西對立과 體用二元論에 기초하여 중서문화의 충돌 가운데에서도 항상 中國傳統文化의 本位나 主導的 地位를 강조하면서, 西學이 本位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혀 내세워본 적이 없었던 중체서

24) 閔斗基, 1985, p. 41에서 재인용.

25) 謝放, 1996, pp. 4-5.

26) 丁偉志·陳崧, 1995, pp. 258-271, 307-313; 張岱年·程宜山, 1990, pp. 327-332을 참조.

27) 丁偉志·陳崧, 1995, pp. 268-271; 劉琳, 「維新思想家批判“中體西用”說的力作 — 讀何啓《勸學篇書後》」, 『四川師範大學學報(社科版)』, 1998-01.

용론적 사고는 19세기 후반을 거쳐 종래의 中華帝國的 天下秩序가 완전히 붕괴되어감과 동시에 그 몰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 辛亥革命期(20세기 초) 中學의 位相變化와 西學受容

### 1) 辛亥革命期 中學의 位相變化

19세기 후반의 중체서용론적 사고에서 시작된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충격은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辛亥革命期 또는 新政期) 종래보다 훨씬 급격한 방향전환과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물론 그것은 앞서도 다루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청일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청일전쟁에서의 패배가 가져온 민족적 충격과 반성은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급격한 몰락(물론 淸朝정부나 보수파의 완강한 저항이 지속되기는 하였지만)을 필연적인 것으로 하였고, 중학·중체의 사상적 지위는 西學·新學에게 급속하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였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中上西下”에서 “中西對等”(그리고 그 다음단계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西上中下”)으로의 사고방식의 전환은 이미 康有爲나 梁啟超 등 변법파의 중학의 中西會通論(“不中不西, 亦中亦西”의 ‘新學’指向)이나 中體西用論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헤친 嚴復이나 何啓와 같은 서구화론자의 改革論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9)</sup>

28) 이를테면 청말의 서학수입과 중국의 현대화문제를 개관한 劉可, 「清末西學輸入與中國的現代化」, 張立文等主編, 『傳統文化與現代化』(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7)은 대규모적이고 목적의식을 지닌 西學輸入의 運動을 청일전쟁을 획기로 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특히 1895년의 사상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분석하고 있는 葛兆光, 『中國思想史 第二卷 七世紀至十九世紀中國的知識, 思想與信仰』(復旦大學出版社, 2001)의 제3편 제9절 「1895年的中國: 思想史上的象徵意義」를 참조.

하지만 變法派의 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여전히 완전히 中學優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고(이것은 辛亥革命期나 그 이후 이들 전체의 사상이 대체로 이른바 文化保守主義로 후퇴하였던 데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그들의 改革思想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하나의 社會思潮로 등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몰락이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는 것은 의화단사건의 충격과 그 결과 추진되는 淸朝의 新政이 시작되는 20세기로 들어오면서라고 할 것이다. 19세기 전반을 다루면서 ‘西學東漸’의 역사를 통관한 大著인 熊月之의 『西學東漸與晚淸社會』(上海人民出版社, 1994)가 서학동점의 제4단계로서 1900년에서 1911년까지를 잡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sup>30)</sup>

이렇게 시작된 20세기 초 중국사회의 사상 문화적 영역에서 물론 가장 먼저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전통문화·가치체계, 즉 中學이 종전에 차지하던 학술 사상에서의 중심적 위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앞서 든 대로 이미 張之洞의 『勸學篇』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經世致用’의 學問, ‘外王’의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 주사상 儒學의 危機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義和團에서의 패배가 가져온 거대한 충격과 ‘亡國滅種’이란 위기의식의 심화는 더 이상 中學에 의한(또는 中體西用論的) 對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자명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논의는 잘못되었고, 현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또한 세상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거나 “만약 그 논의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禍國殃民의 폐해가 곧바로 나타날 것이다”(何啓, 『勸學篇』書後)고 했던 평가는<sup>31)</sup> 바로 정곡을 찌른 것이다.

29) 薛化元, 1991; 丁偉志·陳崧, 1995; 昌切, 1999; 熊月之, 1986; 姜林祥, 1998 등의 관련부분을 참조.

30) 熊月之는 清末 西學東漸의 歷史를 획분하면서 제1단계는 1811~1842년, 제2단계는 1842~1860년, 제3단계는 1860~1900년로 잡고 있다.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淸社會』(上海人民出版社, 1994)의 緒論, pp. 7-15를 참조.

31) 姜林祥, 1998, p. 149; 또한 熊月之, 1986, pp. 158-173; 丁偉志 陳崧, 1995,

이러한 전통의 주류로서의 儒教·儒學의 위기는 우선 그 상징인 孔子에 대한 이해나 평가의 변화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선구적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今文經學의 입장에 서서 『孔子改制考』나 『新學僞經考』를 발표함으로써 전통적인 공자상과는 전혀 다른 改革者로서의 “托古改制”의 孔子像을 내걸고 근대서구의 민권·평등·자유 사상을 그 위에 겹쳐 씌우므로 變法이라는 목표를 위해 孔子와 正統儒學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康有爲나, 戊戌變法 이후 孔子의 본면목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공자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진리를 더욱 사랑한다”(『保教非所以尊孔論』, 1902년)고 하여 전통적인 맹목적인 공자숭배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였던 梁啓超, 유명한 『仁學』을 통해 전통유학의 핵심인 三綱五倫을 비판하면서 “沖決一切網羅”를 제기하였던 譚嗣同, 서구근대사상을 대표하는 저작들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동시에 그에 기초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급진적인 西歐化論의 입장을 개진하였던 嚴復 등의 사상 속에서 나타난 유교나 공자에 대한 태도는 “우리 堯舜禹湯文武周公의 道를 지킨다”는 식의 중체서용론적 사고와는 이미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중학·유교에 대한 비판(批孔反儒)은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 속에서 유교나 유학에 항상 주류를 빼앗겨 왔던 非主流的 思想이 近代에 들어와,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주목을 받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漢武帝의 “獨尊儒術” 이래 非主流思想으로 거의 잊혀져 왔던 諸子學의 부활과 또 다른 非主流로서의 佛學의 再生이었다. 『勸學篇』의 저자 張之洞이 여전히 “唯尊孔學, 罷黜百家”를 고집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康有爲가 孔子改制를 논하면서 孔子를 諸子와 같은 대열에 서게 하였던 것은 이러한 단서를 상징해주는 것으로 보이지만<sup>32)</sup> 사실 이러한 諸子學의 부흥은 청대 이래의 사상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미 乾嘉年間에 극성하였던 考證學(漢學) 발전의 내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또다른 촉진

pp. 268-271에 소개된 何啓·胡禮垣의 思想에 대한 서술을 참조.

32) 姜林祥, 1998, p. 144, p. 161.

요소의 하나는 바로 압도적인 힘으로 中學의 위상에 도전해오는 西學의 도전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19세기 후반의 사상적 지형은 諸子學의 부흥을 여러 면에서 예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佛學의 재생 역시 譚嗣同의 『仁學』에 의한 적극적인 포섭에서 대표적인 단서가 보인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非主流思想의 복권을 시도한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章炳麟의 경우일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에 의한 유교와 공자의 비판 및 諸子學의 위치설정, 불학의 도입에 의한 中學의 재정립은<sup>34)</sup> 이미 그 효용이 의심받고 있는 정통주류로서의 유학 이외의 전통적 사상자원 속에서 새로운 중학의 건립을 위한 모색을 시도하려는 19세기 이래의 과제를 새로운 국면에서 계승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傳統的인 中學의 재건을 통해 近代的인 西學의 도전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바로 辛亥革命期에 등장한 이른바 ‘國粹學派’로 대표되는 思潮에서도 그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國粹學派의 사상적 노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나와있다.<sup>35)</sup> 따라서 여기서 그 思潮의 상세한 흐름에 대해 다시 고찰할 필요는 없지만, 20세기에 나타난 급격한 ‘歐化’ 思潮에 대하여 『國粹學報』를 중심으로 삼아 “國學을 研究하고 國粹를 保全하며” “古學을 復興”한다는 것을 목표로 전통적 학문·사상·문화를 ‘國學’·‘國粹’로 재건하려 하였던 이들의 시도는 사실상 近代(性)의 도전에 직면한 이러한 傳統 내지는 中學이 처한 위기상황을 反證해주는 것이라

33) 이러한 제자학 부흥의 배경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도 요령있는 설명은 島田虔次, 「清朝末期における學問の情況」 및 「辛亥革命期の孔子問題」, 『中國思想史の研究』(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2), pp. 521-606을 참조. 또한 葛兆光, 2001, pp. 494-529의 자세한 논의를 참조.

34) 위와 같음.

35) 천성림, 「신해혁명 시기 국수학파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년도 박사학위청구논문, 1995); 천성림, 「近代中國 思想世界의 한 흐름: 思潮論爭 人物」(신서원, 2002); 鄭師渠, 『晚清國粹派 — 文化思想研究』(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등.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國粹學派의 思潮가 (康有爲등 保皇派의 古文經學에 대항하는) 古文經學 중심의 經學再建과 排滿革命을 위한 種族思想의 鼓吹라는 것을 중심적인 목표로 삼으면서도(“國粹를 이용하여 種性を 激動시키고 愛國의 熱腸을 增進시킨다”는 그 대표자인 章炳麟의 말처럼) 西學의 수용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적극적인 흡수에 의해 새로운 국학의 재건을 도모하였던 것은 이미 西學의 受容이라는 것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가 되었던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다른 한편, 그들의 이러한 國學(내지는 中學 또는 經學) 재건의 시도가 이미 그 몰락이 결정되었던 전통적인 經學의 終末을 막을 수 없었던 것 또한 그 역사적 한계를 잘 보여준다.<sup>36)</sup>

이러한 유학 내지는 경학의 몰락은 동시에 ‘三代’를 이상으로 삼는 전통적인 儒敎的 經世論(또는 社會-歷史觀이나 政治思想)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세기의 중체서용론적 사고에서는 여전히 절대적 우선성을 지니고 있었던 “堯舜禹湯文武周公의 道”으로 표현되는 三代之 盛世는 이미 더 이상 자명한 思想的·哲學的 前提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세기의 경우 어떠한 사상가이든지 그 사상의 자명한 원리로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三代’論이나<sup>37)</sup> 그에 기초한 政治·社會·文化論은 20세기에 들어오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이제까지 인용해왔던 19세기 20세기 초의 中國思想史를 다룬 通史를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점이기도 하다.

36) 물론 전통적인 주류로서의 유학이나 경학이 여기서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에도 여전히 유학이나 경학은 하나의 학문적 흐름으로써 완강한 생명력을 지속하게 되지만 사회 전체의 사상적 흐름을 주도하는 지배적 위치를 상실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또한 國粹學派에 가담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민국시대에 들어와 대부분 문화적 보수주의로 후퇴하거나 國粹學派의 흐름이 거기에서도 연장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천성림, 2002에서의 분석을 참조.

37) 이에 대한 사례는 曹秉漢, 「19세기 중국 개혁운동에서의 ‘中體西用’」, 『동아시아역사연구』 2, 1997, pp. 158-166을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中學體系의 몰락은 시대를 대표하는 改革·革命思想家의 先驅인 사고 속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청말 현실 사회의 흐름이 그러한 변화를 필연적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점은 주류정통 사상으로서의 儒學의 위상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기반으로서의 教育·官吏登用체제로서의 科擧制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청말 이후의 經世論·改革論에서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科擧制度는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戊戌變法이나 新政時期의 改革을 통해 전통적인 “八股取士”의 방식에서 策論방식으로서의 변화나 궁극적인 科擧制 자체의 폐지로 이어지는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 과거응시자로 하여금 “國家의 取士가 洋務에 통하고 西學에 밝은 사람을 超特之科로 삼고 孔孟之學을 鄭重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거나 “양무에 통하고 서학에 밝은 사람을 파격적으로 托用”함으로써 “천하의 선비들 가운데 孔孟을 버리고 洋學을 향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인식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인식에서 보듯 이 전통적인 유학(경학 또는 朱子學)이 정통지배이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科擧制度가 1905년 그 폐지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더 이상 종래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의 미심장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西學爲用에서 中學不能爲體”라는 제목은 이러한 현상의 핵심을 찌른 것이라 할 것이다.<sup>39)</sup>

물론 淸朝 자체가 정통이념으로서의 儒學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점은 의화단사건에서의 패배에 따른 국가-사회 전반의 위기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淸朝가 新政을 추진하면서도 내세운 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義和團事件으로 北京을 떠나 西安으로 피신

38) 羅志田, 「科擧制的廢除與四民社會的解體」, 『權勢轉移: 近代中國的思想, 社會與學術』(湖北人民出版社, 1999), p. 172. 이 글은 清末 山西출신의 舉人이었던 劉大鵬의 『退想齋日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39) 羅志田, 「新的崇拜: 西學衝擊下近代中國思想權勢的轉移」, 『權勢轉移: 近代中國的思想, 社會與學術』(湖北人民出版社, 1999), p. 48에 나오는 제2절의 제목이다.

한 西太后가 光緒 26年 12月 10日 改革의 必要性을 인정하는 新政의 上諭를 내리면서 “바뀌지 않는 것은 三綱五常으로 日月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은 旣甲旣乙으로써 이는 鞞瑟의 줄을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하여 儒敎의인 理念을 前提로 한 ‘變法’의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軍機大臣等과 各省督撫에게 “中西政治를 參酌하여 朝廷의 章典과 吏治·民生, 學校·科擧, 軍制·財政”에 대해 무엇을 因革省併할 필요가 있는지 각각의 所見을 2개월 내에 奏聞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sup>40)</sup> 그 좋은 사례이다. 여기서는 康有爲 등에 의해 추진되었던 過去의 戊戌改革을 “亂法이지 變法이 아니다”고 부정하고 있었지만 富強을 이루기 위해 ‘西學의 本源’을 배우겠다는 그 의도는 사실상 戊戌改革의 延長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으며, 그 기반이 된 사상도 張之洞의 『勸學篇』에 보이는 중체서용론적 사고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후에도 淸朝가 신식학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敎育 제도를 건립하면서 그 법률적 기반으로 삼은 『奏定學堂章程』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讀經敎育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나, 새로운 敎育行政機構로서 學部를 설립한 다음 반포한 『欽定敎育宗旨』에서 ‘忠君’이나 ‘尊孔’을 중심으로 삼았던 것은 이러한 淸朝의 정책적 지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sup>41)</sup> 이러한 淸朝의 指向이 이 시기에도 敎育方面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앞 절에 지적한 현상과 아울러 생각하면 의미심장하지만, 淸朝가 新政추진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던 中體西用論의 思考가 실제로도 그 의미를 잃지 않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張之洞이 『勸學篇』에서 격렬하게 반대하였던 議員制度의 설립이 1905년 이후 활성화된 立憲運動과 그에 떠밀린 淸朝의 豫備立憲의 추진을 통해 몇 년 후에 구체적인 현실로서 나타나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40) 朱壽朋撰, 『光緒朝東華錄』(中華書局, 1958) 光緒二十六年 十二月 丁未條 上諭, pp. 4601-4602.

41) 이를테면 龔書鐸은 辛亥革命時期에 “中體西用”은 청정부의 방침이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龔書鐸, 『辛亥革命與文化』, 『歷史研究』 1989-5, pp. 105-106.

## 2) 辛亥革命期の 西學受容: 民國初期와의 關聯하여

더구나 20세기에 들어와 淸朝가 추진하기 시작한 新政 자체는 사실상 전통적인 가치·학문·사상·문학체계로서의 중학 내지는 유학의 위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위협였다. 新式學堂의 설립과 전통적인 書院의 學堂으로의 전환, 적극적인 유학생의 파견정책, 科擧制의 改革과 궁극적인 폐지 등은 사실상 전통적인 中學을 대신하는 新學으로서의 西學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시에 中學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인 讀書人層이나 紳士層의 몰락과 소멸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의화단 사건 이후 淸朝정권의 위신침추에 따른 改革論의 사실상의 승인과 淸朝 자체의 전복을 목표로 삼게 된 革命論思潮의 급속한 興起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러한 思潮에서 나타나는 서구의 自由·平等理論이나 天賦人權論·民主共和國的 指向에의 정도나 이 시기 중국사상계를 석권하였던 進化論의 영향에, 19세기 말 이후 급속하게 발전한 신문이나 잡지의 발간 등 언론계의 발전이나 서구적 학문·사상의 번역과 소개가 급증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儒學이나 科擧중심의 학문보다는 신식학당이나 해외유학을 통해 획득한 西學知識에 오히려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 새로운 지식인이나 學生집단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앞서 國粹學派가 우려하였던 맹목적인 '歐化主義'의 흐름을 시대의 대세로 삼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시기의 사상 문화적 현상을 분석한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sup>42)</sup>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간명한 요약으로 대신하고자 한다.<sup>43)</sup>

42) 특히 이러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桑兵, 『晚淸學堂與社會變遷』(臺北: 稻和出版社, 1992); 桑兵, 『淸末新知識界的社團與活動』(北京: 三聯書店, 1995); 羅志田, 1999; 羅志田, 『辛亥革命時期的精英文化研究』(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1) 등을 들 수 있고, 丁偉志·陳崧, 1995의 第4章도 辛亥혁명기 문화관념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43) 熊月之, 1994의 緒論, pp. 13-14의 내용을 필자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서양서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번역에서 일본을 통한 간접적 수입으로의 전환하였다. 1900년 이후 일본으로부터 간접 수입한 서학의 수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학수입의 주요부분이 되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 3년간 번역된 외국서적은 533종인데 그 가운데 일본서적이 321종으로 60%를 차지한다.

2. 서학수입의 수량이 전에 없는 규모로 늘어났다. 1900년부터 1911년까지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를 통해 번역한 서양서는 모두 1,599종으로 청말 100년간 번역 총수의 69.8%로 그 이전 90년 동안 번역한 총수의 두 배이다. 그 가운데 1900년에서 1904년까지의 5년간 역서는 899종으로 이것도 그 이전 90년 동안의 역서보다 많다.

3. 사회과학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를 예로 든다면 3년간 번역된 문학·역사·철학·경제·법학 등 사회과학서적이 327종으로 61%를 차지한다. 자연과학은 112종, 응용과학은 56종으로 각기 21%와 11%를 차지한다. 이것은 수십년 이전의 역서 순서와는 정반대로서 중국의 서학수입이 이미 器物·技藝 등 물질문화 위주에서 思想·學術 등 정신문화 위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4. 영향의 확산. 대량의 서학의 유입, 특히 각기 다른 수준의 신식 교과서가 도시나 농촌에 널리 보급되어 가가호호마다 들어가게 된 것은 서학의 영향을 전에 없이 깊숙이 확산시켰다. 눈동자가 어지러울 정도의 새로운 學科, 새로운 名詞는 학계와 출판계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지금은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명사, 술어(이를테면 사회, 정당, 정부, 민족, 계급, 주의, 사상, 관념, 진리, 지식, 유물, 유심, 주체, 객체, 주관, 객관, 구체, 추상이란 용어) 등이 모두 당시 확립되었다. 이것은 五四時期 白話文運動의 기초를 닦았으며, 청말 서학의 대량 유입이 없었고, 당시와 같은 새로운 명사의 폭발적 이용이 없었다면 이후의 신문화운동은 아주 상상하기 어렵다.

5. 중국의 제1세대 번역인재가 등장하였다. 이전의 번역서는 대부분 '西譯中述'의 모델에 따른 것으로 독립적인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嚴復, 馬君武 등에서부터 비로소 近代中國은 스스로의 제1세대 번역인재를 가지게 되었고 西譯中述이란 과도형식을 종결시키게 되었다.

이상의 정리는 짧지만 당시 서학수입의 폭발적인 증가와 영향력, 그리고 그 지배적인 위치의 확립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청말 서학의 대량 유입이 없었고, 당시와 같은 새로운 명사의 폭발적 이용이 없었다면 이후의 신문화운동은 아주 상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론에서 필자는 민국초기의 신문화운동은 필자가 보기에는 청말 신정기의 일정한 기반 정리작업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그 점에서 청말과는 단절된다고보다 그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적인 비약을 이룬 것이라는 시각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熊月之의 지적은 필자의 시각을 밑받침하는 하나의 단서로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앞서 지적한 청말 辛亥革命期의 유교비판이나 西歐文化의 受容에 관한 많은 논점들은 민국 초기(신문화운동기)의 그것과 동등하게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辛亥革命期의 思想史 자료를 검토하면서 얻은 필자의 전반적인 상으로는 대체적으로 그 원형이나 기본 내용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있는 점이 상당히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다룬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儒敎批判 이외에도 辛亥革命期에 새로 등장한 국내외의 學生과 지식인들에 의한 전통적인 중국사회체제와 군주독재체제의 기반으로서의 유교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잘 알려진 5·4운동기의 그것에 비해서도 그리 큰 손색이 없다고 하는 점은 몇몇 선구적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유명한 思想史연구자인 蔡尙思는 일찍이 辛亥革命期 ‘新思想運動(또는 前期新文化運動)’의 존재를 지적하면서 反君主專制論·反男權女權論·反族權父權論·反奴隸主義 등 다양한 反孔·反傳統 사상을 소개하고 이것이 戊戌·辛亥·五四期를 거치면서 한단계씩 상승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sup>44)</sup> 또다른 대표적인 연

44) 蔡尙思, 「辛亥革命時期的新思想運動 — 資產階級各派主要的反孔反封建思想 —」,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七十周年學術討論會論文集 中』(中華書局, 1983). 같은 책에 실린 何若鈞, 「辛亥革命前夕資產階級革命派對封建主義的批判」도 전통사상의 비판이란 측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徐揚杰, 「辛亥革命

구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할 수 있는 龔書鐸 역시 辛亥革命期의 사상문화가 戊戌變法期나 五四運動期에 비해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 주목하면서 이 시기의 三綱五倫을 중심으로 하는 孔學·孔子에 대한 批判이나 중서문화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新文化運動은 辛亥革命時期 ‘文化革命’의 계승과 발전임을 지적하면서 “五·四”前 新文化運動에서 제출된 주요문제는 거의 辛亥革命時期에 이미 제기된 것이라고 할 정도로 辛亥革命期 문화혁신의 衝擊을 강조하고 있다.<sup>45)</sup>

그리고 이러한 蔡尙思나 龔書鐸과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신문화운동의 원류’로서 辛亥革命期의 문화현상을 분석한 陳萬雄 역시 5·4신문화운동의 중요내용인 反傳統사상이나 白話文의 提倡, 西洋文學理論등의 소개는 모두 청말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계승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sup>46)</sup> 그의 분석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清末民初時期에 비교적 文化·教育의 혁신을 제창한 혁명적 지식인은 대부분 10년 이후 5·4신문화운동의 창도자이므로(예를들면 陳獨秀, 胡適, 魯迅 등) 5·4신문화

---

前後對於封建家族制度和宗法思想的批判」,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與近代中國: 紀念辛亥革命8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下冊』(中華書局, 1994); 張海林, 「論本世紀初青年知識分子對封建傳統的批判」, 『揚州師院學報(社科版)』1996-2; 潘家德, 「二十世紀初中國知識分子對傳統文化的反思」, 『四川師範大學學報(哲社版)』1997-5 등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45) 龔書鐸, 「辛亥革命與文化」, 『歷史研究』1989-5; 龔書鐸, 「辛亥文化革新與“五四”新文化運動」,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與近代中國: 紀念辛亥革命8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下冊』(中華書局, 1994). 또한 丁偉志·陳崧, 1995, p. 392의 경우 역시 이 시기를 신문화운동의 前奏, 이후 전개될 중서문화론의 맹아기로 평가하고 있다.

46) 陳萬雄, 「五四新文化運動的源流」, 中國社會科學院科研局等編, 『五四運動與中國文化建設 — 五四運動七十周年學術討論會論文集 上冊』(中華書局, 1991); 陳萬雄, 「革命派與清末民初的文學革新運動」,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與近代中國: 紀念辛亥革命8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下冊』(中華書局, 1994); 陳萬雄, 『五四新文化的源流』(香港: 三聯書店, 1992).

운동의 주도자나 辛亥革命期の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대라는 지적이다.<sup>47)</sup>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辛亥革命期和 (5·4)新文化運動期가 사상적인 측면에서나 그 담당자인 인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해혁명사와 민국사의 시기는 ‘斷絶’ 보다는 오히려 ‘連續’이라는 점에서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던 필자로서는<sup>48)</sup> 이러한 시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辛亥革命(제1차공화혁명)시기에 제기된 反帝와 反封建의 과제가 共和制의 理念이 五四運動(제2차공화혁명)시기에 들어와 그 실질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을 연관시켜 ‘共和革命’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제시한 閔斗基教授의 ‘共和革命論’<sup>49)</sup>과 연결시켜 보아도 이러한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反封建’의 思想·文化的 측면이라는 점에서 보면 辛亥革命期에 제기되었던 그러한 과제가 5·4新文化運動期에 와서 보다 충실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로서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사실상 辛亥革命期에 이루어진 批孔反儒의 사조가 新文化運動期の 그것과 그리 차이가 없거나 그 대부분의 내용을 이미 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sup>50)</sup> 왜 독자적인 하나의

47) 陳萬雄, 1992의 結論 부분을 참조.

48) 金衡鍾, 2002의 서론을 참조.

49) 閔斗基, 「‘國民革命’ 試論 — 現代史의 起點으로서 辛亥革命 性格의 理解를 檢하여」, 『中國國民革命의 分析의 研究』(知識産業社, 1985); 閔斗基, 「民國革命論」,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編, 『講座中國史 VI』(知識産業社, 1989); 閔斗基, 『中國의 共和革命(1901-1913)』(知識産業社, 1999); 閔斗基, 「五四運動與辛亥革命 — 試論‘共和革命’ —」, 郝斌·歐陽哲生主編, 『五四運動與二十世紀的中國 上冊』(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등.

50) 물론 辛亥革命期の 공자문제를 분석한 島田度次の 경우 “결론적으로 공자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주장은 改革·革命 兩派의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다”(島田度次, 2002, p. 592)고 지적하고 있어 “打倒孔家店”의 구호를 제기한 5·4기와 대조하고 있다.

文化運動으로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辛亥革命期의 思想·文化가 戊戌變法期나 五·四運動(新文化運動)과 같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였던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필자의 假定的인 推論에 의하면 그것은 결국 辛亥革命期와 五四新文化運動期는 그러한 새로운 思想·文化의 제창자나 그 신봉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를테면 새로운 근대적 지식인과 學生, 青年層의 형성)에서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辛亥革命期는 근대적 신식교육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만큼 그러한 신식교육의 혜택을 받고 형성된 근대적 지식인이나 청년 학생층이란 매우 그 층이 열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 5·4기가 되면 이미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새로운 근대적 지식인과 學生層의 규모는 이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또한 新政 이후 불붙기 시작한 ‘歐化主義’의 열풍이 中學의 최후보루나 마찬가지로 있었던 淸朝가 辛亥革命으로 몰락하고 中華民國이 성립되면서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앞서 陳萬雄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辛亥革命期나 五四運動期의 反傳統論者는 동일한 세력이었지만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할만한 사회적 기반이나 세력은 辛亥革命期에는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바로 辛亥革命期 西學의 수용이 가졌던 역사적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 청말과 민국초기의 西學受容

이상에서 전통과 근대 또는 중학과 서학이라는 관점에서 청말의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흐름과 성격 및 20세기 초 중학 위상의 변화와 서학 수용이라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면 辛亥革命期의 文化的 位相은 五·四新文化運動期와의 連續性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中學이라

고 하는 傳統的 價値의 몰락과 그것을 대신하는 近代的 新學으로서의 西學受容이 그야말로 본격화된 시기라고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격적인 서학수용의 현상은 19세기 중후반 이래의 중체서용론적 사고의 몰락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상 너무 시기가 뒤늦은 것이었다. 西用을 통해 中體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던 중체서용론적인 사고가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淸朝의 몰락과 그에 따른 전통적인 經學의 종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소극적이고 마지못한 태도로 나타나는 時代的 遲滯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청말의 전통적 중국문화가 근대적 외부세계의 새롭고 거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어느 정도 상실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서구와의 접촉이 처음 시작되었던 명조 말기 무렵 중국학자의 서학에 대한 대응자세를 보면 이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명말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받아들인 서양의 학술을 높이 평가하였던 徐光啓는 崇禎4年の 上疏에서 “超勝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會通이 필요합니다. 會通 이전에는 우선 반드시 翻譯이 필요합니다. … 翻譯에 이미 端緒가 얻게 되면 그런 다음에야 法意를 깊이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參詳考定케 해야 합니다”(「明史」 「徐光啓傳」)고 지적한 바 있었다.<sup>51)</sup> 물론 그가 한 작업의 대부분은 서양의 학술을 翻譯紹介하는데 머무르고 會通 方面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하지만,<sup>52)</sup> 이러한 개방적이고도 창조적인 ‘會通’과 ‘超勝’의 노력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청말의 상황에서는 19세기가 끝나는 무렵에 와서야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sup>53)</sup> 이러한 초기의 개방적이고도 적극적인 西學受容의 태도가 “그 技能을 節取하되 그 學術의 傳播는 금지한다”는 『四庫全書總目提要』 「雜家類 存目」의 태도로 바뀌었던 것은 비

51) 張岱年·程宜山, 1990, p. 315.

52) 張岱年·程宜山, 1990, p. 319.

53) 이러한 자세와 가장 유사성을 지니는 것은 “새것과 옛것을 통합하여 그것을 관통하는 것을 보고, 중국의 것과 외국의 것을 포괄하여 그 온전함을 꾀한다”고 하였던 嚴復의 경우일 것이다. 丁偉志·陳崧, 1995, p. 309.

록 魏源등이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한다(師夷之長技以制夷)”를 제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sup>54)</sup>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자세가 다시 초기의 개방적 자세로 복귀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나긴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辛亥革命期에 시작되어 五四運動期를 거치면서 확립되었던 西學의 주도적 지위도 결코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음은 그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中西文化의 論爭에서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辛亥革命期에 들어와 이미 그 설득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던 중체서용론적 사고는 끊임없이 이것을 제창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외피를 걸치고 출현하면서 20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5·4 이후 출현한 梁漱溟을 대표로 하는 東方文化派, 1935년 王新命 등 10教授에 의한 ‘中國本位의 文化建設宣言’, 항일전쟁기의 馮友蘭 등의 新儒教(新儒學) 再建의 시도, 50년대 이후 香港·臺灣 등지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오늘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現代新儒家’ 등의 이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中西의 會通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이러한思潮들은 모두 중체서용론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中學의 절대적인 優先性을 自명한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目錄

### 1. 사료

閔斗基 編譯. 『胡適文選』, 三星文化文庫, 1972.

張之洞. 『張文襄公全集』, 中國書店, 1990年影印.

江蘇學務公所印刷處編. 『江蘇學務文牘』(上下 10冊), 上海: 宣統三年.

54) 丁偉志·陳崧, 1995, pp. 156-158.

- 故宮博物院明清檔案館編. 『清末籌備立憲 檔案史料』, 中華書局, 1979.
- 張枬·王忍之.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三聯書店, 1960~1978.
- 朱壽朋撰. 『光緒朝東華錄』5冊. 中華書局, 1958.
- 中國歷史博物館編, 勞祖德整理. 『鄭孝胥日記』, 中國近代人物日記叢書. 中華書局, 1993.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辛亥革命回憶錄』, 文史資料出版社, 1981再版.

## 2. 연구서

- 金貞和 譯, 丸山松幸 著. 『五·四運動의 思想史』, 일일서각, 1983.
- 金衡鍾 譯, 李澤厚 著. 『中國現代思想史의 屈折』, 지식산업사, 1992.
- 金鍾潤 譯, 余英時 著. 『중국 전통적 가치체계의 현대적 의의』, 전주대출판부, 1997.
- 金衡鍾. 『清末 新政期の 研究 — 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 —』, 서울대출판부, 2002.
- 閔斗基 著. *Men and Ideas in Modern Chinese History*, S.N.U. Press, 1997.
- . 『辛亥革命史: 中國의 共和革命(1903-1913)』, 민음사, 1994, 知識産業社, 1999.
- . 『中國近代改革運動의 研究 — 康有爲中心의 1898年 改革運動 —』, 一潮閣, 1985.
- . 『中國近代史研究 — 紳士層의 思想과 行動 —』, 一潮閣, 1973.
- . 『中國의 전통과 근대』, 평민서당, 1979.
- . 『中國初期革命運動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編. 『講座中國史 VI』, 지식산업사, 1989.
- 梁啓超(李基東 崔一凡共譯), 『清代學術概論』, 驪江出版社, 1987.
- 천성림. 『近代中國 思想世界의 한 흐름: 思潮 論爭 人物』, 신서원, 2002.
- 葛兆光. 『中國思想史 第二卷 七世紀至十九世紀中國의 知識, 思想與信仰』, 復旦大學出版社, 2001.

- 姜林祥. 『中國儒學史 近代卷』, 廣東教育出版社, 1998.
- 高瑞泉主編. 『中國近代社會思潮』,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 羅志田. 『權勢轉移: 近代中國的思想, 社會與學術』, 湖北人民出版社, 1999.
- . 『辛亥革命時期的精英文化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1.
- 桑兵. 『晚清學堂與社會變遷』, 臺北: 稻和出版社, 1992.
- . 『清末新知識界的社團與活動』, 北京: 三聯書店, 1995.
- 薛化元. 『晚清中體西用思想論(1861-1900) — 官定意識形態的西化理論』, 臺北: 稻鄉出版社, 1991.
- 蕭功秦. 『危機中的變革 — 清末現代化進程中的激進與保守』, 上海三聯書店, 1999.
- 吳雁南等主編. 『中國近代社會思潮 1840-1949 第一卷』, 湖南教育出版社, 1998.
- . 『清末社會思潮』, 福建人民出版社, 1990.
- 王德昭. 『清代科舉制度研究』, 中文大學出版社, 1982.
- 王曉秋·尚小明主編. 『戊戌維新與清末新政 — 晚清改革史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8.
-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上海人民出版社, 1994.
- . 『中國近代民主思想史』, 上海人民出版社, 1986.
- 李喜所等編. 『辛亥革命研究一覽』, 天津教育出版社, 1991.
- 林增平等主編. 『辛亥革命史研究備要』, 湖南出版社, 1991.
- . 『辛亥革命』, 中國史專題討論叢書, 巴蜀書社, 1989.
- . 『中國近代史研究入門』, 河南人民出版社, 1990.
- 張岱年·程宜山. 『中國文化與文化論爭』,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0.
- 張寶明. 『啓蒙與革命 — “五四”激進派的兩難』, 學林出版社, 1998.
- 田漢雲. 『中國近代經學史』, 三秦出版社, 1996.
- 鄭師渠. 『晚清國粹派 — 文化思想研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 丁守和編. 『辛亥革命時期刊介紹』第5集, 人民出版社, 1987.
- 丁偉志·陳崧. 『中體西用之間: 晚清中西文化觀述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상책.

- 朱維靜,『求索眞文明 — 晚清學術史論』,上海古籍出版社,1996.
- 中國社會科學院科研局等編,『五四運動與中國文化建設 — 五四運動七十周年學術討論會論文選 上冊』,中華書局,1991.
- 中國現代文化學會編·丁守和主編,『中國近代啓蒙思潮』,上中下,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9.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中國近代的維新運動 — 變法與立憲』,臺北,1981.
-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主編,『中國近現代史論集』,臺北,1986.
- 中華書局編輯部編,『辛亥革命與近代中國:紀念辛亥革命8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中華書局,1994.
- 陳其泰,『清代公羊學』,東方出版社,1997.
- 陳萬雄,『五四新文化的源流』,香港:三聯書店,1992.
- 陳少明等,『被解釋的傳統 — 近代思想史新論』,中山大學出版社,1995.
- 昌切,『清末民初的思想主脈』,東方出版社,1999.
- 湯志鈞,『戊戌變法史』,人民出版社,1984.
- 彭明,『五四運動史(修訂本)』,人民出版社,1998.
- 彭明等主編,『近代中國的思想歷程(1840-1949)』,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9.
- 何懷宏,『選舉社會及其終結 — 秦漢至晚清歷史的一種社會學的闡釋』,三聯書店,1998.
- 郝斌·歐陽哲生主編,『五四運動與二十世紀的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1.
- 許紀霖主編,『二十世紀中國思想史論』上下,東方出版中心,2000.
- 湖北大學中國思想文化史研究所主編,『中國文化的現代轉型』,湖北教育出版社,1995.
- 島田度次,『中國思想史の研究』,京都大學學術出版會,2002.
- 阿部洋,『中國近代學校史研究 — 清末における近代學校制度の成立過程 —』,福村出版社,1993.
- 有田和夫,『近代中國思想史論』,汲古書院,1998.
- 佐藤慎一,『近代中國の知識人と文明』,東京大學出版會,1996.

曾田三郎編. 『中國近代化過程の指導者たち』, 東方書店, 1997.

### 3. 연구논문

姜明喜. 「中國의 思想계몽운동에 있어서 '科學'의 의미 분석 — 五四시기를 중심으로 —」, 『한세대학교 교수논총』 13, 1998.

龔書鐸. 「辛亥文化革新與五四新文化運動」,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與近代中國: 紀念辛亥革命8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下冊』, 中華書局, 1994.

\_\_\_\_\_. 「辛亥革命與文化」, 『歷史研究』 1989-5.

金貞和. 「辛亥革命時期 劉師培의 無政府主義 認識」, 『忠北史學』 4, 1991.

金衡鍾. 「上海에서의 辛亥革命的 展開過程 — 革命政權과 各政治勢力의 對應 —」, 『東洋史學研究』 20, 1984.

\_\_\_\_\_. 「辛亥革命에서의 反帝問題의 認識과 實踐 — '革命瓜分論'과 革命派의 對應 —」, 『東洋史學研究』 30, 1989.

\_\_\_\_\_. 「辛亥革命的 展開」, 『講座中國史 VI』, 서울大東洋史學研究室 編, 지식산업사, 1989.

\_\_\_\_\_. 「湖南에서의 五·四運動의 展開」,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 13, 1989.

閔斗基. 「'國民革命' 試論 — 現代史의 起點으로서 辛亥革命 性格의 理解를 檢하여」, 『中國國民革命의 分析的 研究』, 知識産業社, 1985.

\_\_\_\_\_. 「民國革命論 — 現代史의 起點으로서의 辛亥革命과 5·4運動 —」, 『講座中國史 VI』, 서울大東洋史學研究室 編, 지식산업사, 1989.

\_\_\_\_\_. 「五四運動與辛亥革命 — 試論 '共和革命' —」, 郝斌·歐陽哲生主編, 『五四運動與二十世紀의 中國 上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_\_\_\_\_. 「中體西用論考」, 『東方學志』 18, 1978(→『中國近代改革運動의 研究』, 一潮閣, 1985).

朴濟均. 「辛亥革命 前 '新世紀派'의 無政府主義思想」, 『慶北史學』 11, 1996.

潘家德. 「二十世紀初中國知識分子對傳統文化的反思」, 『四川師範大學學報 哲社版』 1997-5.

- 白永瑞. 「共和에서 革命으로 — 民初 論爭으로 본 中國 國民國家 形成 —」, 『東洋史學研究』 59, 1997.
- 謝放. 「中體西用: 轉型社會的文化模式」, 『華中師範大學學報, 哲社版』 1996-3.
- 徐揚杰. 「辛亥革命前後對於封建家族制度和宗法思想的批判」,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與近代中國: 紀念辛亥革命8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下冊』, 中華書局, 1994.
- 劉可. 「清末西學輸入與中國的現代化」, 張立文等主編, 『傳統文化與現代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7.
- 劉琳. 「維新思想家批判“中體西用”說的力作 — 讀何啓《勸學篇書後》」, 『四川師範大學學報, 社科版』 1998-01.
- 尹惠英. 「變法運動과 立憲運動」, 『講座中國史 VI』, 知識產業社, 1989.
- 張義植. 「近來의 張之洞 研究 動向」, 『宋甲鎬教授停年退任記念論文集』, 1993.
- . 「清末 科舉制 改廢에 대한 各界의 반응과 舊科舉層 대책」, 『東洋史學研究』 28, 1988.
- . 「清末 張之洞(1837-1909)의 中體西用論과 教育思想」, 『歷史學報』 147, 1995.
- . 「清末 學堂 出身者에 대한 獎勵 制度和 學生 社會」, 『東洋史學研究』 45, 1993.
- . 「清末의 科舉制 廢止過程研究 — 新學校制와 科舉의 統合化를 中心으로 —」, 『歷史學報』 103, 1984.
- . 「清末의 教育改革에 대한 —考察— 國民教育論의 政策化 過程을 중심으로 —」, 『史叢』 30, 1986.
- . 「論本世期初青年知識分子對封建傳統的批判」, 『揚州師院學報(社科版)』 1996-02.
- 曹秉漢. 「19세기 중국 개혁운동에서의 ‘中體西用」」, 『동아시아역사연구』 2, 1997.
- . 「清대의 思想 — 經世學과 考證學 —」, 『講座中國史 IV』, 서울大東洋史學研究室編, 지식산업사, 1989.

- 陳萬雄. 「五四新文化運動的源流」, 中國社會科學院科研局等編, 『五四運動與中國文化建設 — 五四運動七十周年學術討論會論文選 上冊』, 中華書局, 1991.
- . 「革命派與清末民初的文學革新運動」,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與近代中國: 紀念辛亥革命8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下冊』, 中華書局, 1994.
- 陳旭麓. 「論“中體西用”」, 陳旭麓, 『近代史思辨錄』, 廣東人民出版社, 1984.
- 蔡尚思. 「辛亥革命時期的新思想運動 — 資產階級各派主要的反孔反封建思想一」,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七十周年學術討論會論文集 中』, 中華書局, 1983.
- 戚其章. 「全面評價張之洞的“中體西用”文化觀」, 『人文雜誌』1998-3.
- . 「從“中本西末”到“中體西用”」, 『中國社會科學』1995-1.
- 千聖林. 「20세기 초 중국에서의 “國粹”와 反“國粹” 논쟁」, 『梨大史苑』30, 1997.
- 湯志鈞. 「戊戌辛亥間文化思想與政治」, 『史林』1998-2.
- 何若鈞. 「辛亥革命前夕資產階級革命派對封建主義的批判」, 中華書局編輯部編, 『辛亥革命七十周年學術討論會論文集 中』, 中華書局, 1983.



※**1** 늑뻬 $\cup$ **5**ず 말 따쌘  $N$ **7**텨키, E) **7**싼**5**악N.**14**악 엇ず  
 엇 $\square$ 니  $z^*$ 업 (f)웍**8**“**14**” $\sigma$ 0  $z$ 쑤악ず **0**쌍(b)ぬだ 엇 i)  $\leftarrow$   
**14**ヤ ) **6** $\pi$ V죽 $\Delta$ ず 킴.  $\blacktriangle$  $\curvearrowright$ **2****12****19****0****20**ず $\cup$ 툽**4**E쌍 $\cup$ (f)R앰viii**3**o  
 ず“**14**”쌍 **6****20****0** **7** **13**.

g**1**빙 2**0****0****20**ず 는  $\leftarrow$  굶궐**7** —악궐ず 쑤눈**0**악궐  
 램B뻬 악N 간 $\pi$  **8**.  $\textcircled{2}$ 국 $\rightarrow$ ず $\Omega$ 셜 뻬뻬**4** $\curvearrowright$ (11 $\blacktriangle$ 굶 “ 악”ず**4**  
 악 $\cup$ **4**. “궐뻬악B”뻬 ず $\pi$  $\Omega$ (타)“궐키**4** ”  $\leftarrow$  $\rightarrow$ 0 $\cup$ 룻**4**ず궐뻬.**25** $\curvearrowright$   
 $\square$ 전 $\rightarrow$ — 섯ず **4**ず텨키 **10** A궐 $\cup$ 늑ず 뻬키 궐 $\pi$  E) . $\textcircled{x}$ 뻬  $\blacktriangle$  b  
 S.E) ず쑤악Pa따  $\leq$  쑤악  $\pi$ —또궐 $\cup$ 궐다 툽**8**  $\leftarrow$ **4** 덜 $\cup$ 궐궐 $\rightarrow$   
**2****16**을 뻬 $\blacktriangle$ ず $\pi$ o) 궐늑 $\cup$ ず쑤악Pa따  $\pi$ o  $\pi$ 뻬 $\cup$ . **10**궐 b  
 S.늑 뻬키 궐늑 $\blacktriangle$ 야 **4**툽빙  $\textcircled{w}$ — 킴(타).**25** $\curvearrowright$ , b S.늑 $\cup$ ずPa $\cup$ — $\cup$ 쑤  
 ず야쑤 지 뻬키 궐늑 $\cup$ ず야쑤**3**툽 $\pi$ ※ **25** 뻬키 궐늑(f)애—ず  
 쑤악Pa따 음음 $\cup$ 또 —넨웃주쌍 $\cup$ 다 궐궐(o $\square$   $\curvearrowright$ **4**ず  $\cup$ 충 $\parallel$  **5**  
 악N**10** $\textcircled{c}$  ず $\pi$ —) 입 $\curvearrowright$  b S.늑(f) $\rightarrow$ —ず.  $\curvearrowright$  b S.늑궐 $\cup$  **4**악Pa  
 $\Delta$ 또궐(쑤악)ず $\pi$  (타).